

종교변동 관련 이론에 비추어 본 종교와 경제 발전의 관계 연구*

전 명 수**

- I. 문제제기와 연구 현황
- II. 세속화 논쟁과 경제 발전의 관계
- III. 종교의 사사회와 신앙의 측면에서 본 경제 발전
- IV. 합리적 선택 이론에 근거한 신종교의 성장과 영적
시장의 확대
- V. 결론

I. 문제제기와 연구 현황

1. 문제제기

본 연구는 종교의 세속화론이 제기된 후 나타난 종교변동 관련 이론들을 기반으로 종교와 경제 발전의 상호관계를 고찰하기 위해 수행된 것이다. 경제 발전은 교육, 건강, 출산율, 법의 규칙과 선거권 등과 같은 변수에 의존하며, 그밖에도 투자경향, 정부의 크기, 국제적 개방상태와 거시경제의 안정성 등이 중요한 요인들로 거론된다.¹⁾ 덧붙여 정치적 민주주의, 합리주의적 시민정신과 함께 윤리적 기반 위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인식도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오

* 이 논문은 2012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2-330-2012S1A3A2033608).

** 고려대 한국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

1) Robert J. Barro, "Spirit of Capitalism: Religion and Economic Development," *Harvard International Review* (Winter 2004), p. 64.

늘날의 경제 발전과 관련해서는 윤리적 가치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을 말해주거나와,²⁾ 최근에는 경제 발전에 작용하는 문화의 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³⁾ 윤리와 문화의 한 축으로서 종교의 경제적 역할이 더욱 부각된다.

종교와 경제 간의 밀접한 관계는 특히 베버의 『개신교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 발표된 이후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종교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반대로 경제가 종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것은 한 사회를 지탱시키는 주요 제도로서 종교와 경제의 상관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처럼 종교는 경제와의 관계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역할 모두를 담당한다. 전자는 어떻게 종교성이 개인적 특성에 영향을 끼치고, 그에 따라 경제적 활동에 영향을 주는지, 후자는 어떻게 경제 발전과 정치기구들이 종교참여와 신앙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관한 것이다. 종교가 경제적 수행에 지대한 영향을 갖는다고 주장한 하버드대학의 맥클리어리(Rachel M. McCleary)와 배로(Robert J. Barro)는 종교성이 작업 윤리, 정직성과 검약과 같은 개인적 특성에 영향을 끼치고 그에 따라 경제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⁴⁾ 반대로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 보고서(PewResearch Global Attitudes Project, 2002)는 세계 44개국의 국민소득과 종교적 신앙심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좀 더 부유한 나라들이 종교에 덜 중요성을 부여하며, 종교의 힘이 강한 나라일수록 가난하고, 1인당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종교의 영향력이 줄어든다고 발표했다.⁵⁾

본고는 종교와 경제 발전과의 관계를 고찰하면서 특히 종교변동과 관련된 다음 세 가지 이론을 주목하고자 한다. 첫째는 종교의 쇠퇴 내지는 영향력 감소에 초점을 둔 세속화론이다. 종교사회학에서 종교와 경제의 관계가 관심을 모으게 된 것은 세속화 문제가 제기되면서부터이다. 세속화는 종교의 쇠퇴를 전제하는 것이어서 결국 종교인구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은 그 인구가 점차 종교로부터 경제활동으로 옮겨감으로서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종교인구의 감소 문제와 관련해서 세속화 이론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둘째는 종교의 사사회 논의와 경제 발전과의 관계이다. 사사회는 그 이론 속에 경제 개념이 내

2) 조용래, 「경제와 종교의 상관문제와 그 현대적 의미에 대하여: '막스 베버 테제'를 중심으로」(『경제논문집』 7, 1993), pp. 183-184.

3) 새뮤얼 헌팅턴·로렌스 헤리슨 공편, 『문화가 중요하다』, 이종인 옮김(서울: 김영사, 2001), pp. 8-13.

4) Rachel M. McCleary and Robert J. Barro, "Religion and Economy,"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0:2 (Spring 2006), p. 49.

5) PewResearch Global Attitudes Project, <http://www.pewglobal.org/2002/12/19/among-wealthy-nations/>

포되거나 기반이 된 것이 아니라 초점이 제도종교의 쇠퇴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논의가 신앙의 쇠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만약 경제 발전과의 상관관계에서 개별 신자의 '신앙'이 중요하다면 이러한 종교문화의 변동이 경제 성장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도 천착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이다. 종교적 신념이 작업윤리에 영향을 끼침으로서 경제 발전을 견인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셋째는 종교의 합리적 선택 이론에 근거한 신종교 또는 대체종교들의 출현과 경제 발전과의 관계이다. 이들이 기성종교와 치열한 영적 시장에서의 경쟁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그중에는 경제활동에서 성과를 나타내기도 했다는 점에서 경제 발전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논의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세 가지 이론들은 큰 틀에서 세속화이론에 포함시켜 살펴볼 수 있으나 경제 발전과의 관계에서는 이들을 특성별로 나누어 고찰할 필요가 있다. 본 논의는 무엇보다 경제가 종교변동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 이론들은 모두 기독교를 기반으로 한 것이어서 본 연구 역시 기독교가 중심이 되지만 암묵적으로나마 종교 전체를 염두에 두고 수행된다.

2. 종교와 경제 관련 연구 현황

한국에서는 종교와 경제 성장과의 관계에 대한 고찰은 아직 별로 보이지 않으나 종교와 경제 사이의 관계 연구는 그간 성과가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다. 이 연구들은 주로 막스 베버(Max Weber)의 『개신교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1904-05)을 기반으로 이론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에서 베버의 논의에 기반해서 종교와 경제를 다룬 논문들은 대부분 1990년대 이후에 나왔다. 김종서는 종교사회학의 주요 이론인 마르크스(Karl Marx), 베버의 종교 이론과 더불어 유교 윤리와 동아시아 경제발전의 관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다루었다.⁶⁾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신자유주의적 경제 이념과 종교의 관계에 대한 논문들이 나타났다. 김항섭은 신자유주의적 경제 이념에 바탕한 세계화와 구조 조정이 기존의 문화적, 종교적 지형을 바꾸어 놓고 있고, 나아가 인간 삶의 내밀한 부분

6) 김종서, 「종교와 경제간 상관관계론의 현대적 의미」(『종교학연구』 17, 1998), pp. 41-62. 그 밖에 조용래는 「경제와 종교의 상관문제와 그 현대적 의미에 대하여: '막스 베버 테제'를 중심으로」에서 막스 베버 테제를 집중 분석하여 경제와 종교의 상관문제를 다루고 있고, 황재하 역시 「경제와 종교윤리와의 관계」(『사회과학논총』 14, 2002)에서 베버의 이론을 토대로 종교와 경제윤리 문제를 고찰하였는데, 이 논문들은 김종서의 논문과 달리 종교적 관점보다는 경제적 관점에 좀 더 초점을 두었다.

까지 뒤흔들어 놓고 있다고 보았다.⁷⁾ 종교학자들에 의하면 '종교와 신자유주의'는 경쟁적 시장만능주의와 종교의 문제로, 종교시장에 만연된 물신주의를 그 핵심으로 본다. 2008년에 출간된 『종교문화비평』(통권 13호)은 특집으로 종교와 신자유주의를 다루었는데 그 중에서 우혜란은 “신자유주의와 종교문화의 상품화”에서 단월드와 같이 민족주의로 무장한 세계화 기획이 신자유주의적 경제논리와 결합할 때 타 국가의 자연 자원이 어떻게 전유되고 재의미화되고 재편성되어 자신들의 고유 관광 상품으로 구축되는가를 고찰하였다.⁸⁾

한국의 종교와 경제 발전에 관한 그 동안의 연구는 종속변수로서 종교가 성장제일주의의 경제 발전에 편승하여 신자의 증대와 물리적 시설의 확장 등 물량적 성장을 지향해야 할 목표로 삼도록 하였고 개인의 기복 신앙과 신비체험을 강화시킨 것으로 보았다. 이와 달리 종교가 독립변수로서 한국의 경제 발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도 있다. 이들은 한국 경제의 발전과 종교의 양적 성장이 맞물려 진행되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주로 개신교에 논의를 집중시키고 있다. 즉 개신교에서는 물질적인 부요함을 하느님의 축복으로 해석함으로써 이 시기에 본격화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전개와 발전에 기여했다는 설명이다.⁹⁾ 이것은 관념적인 측면에서 개신교가 경제 발전에 기여했음을 주장한 것이다.

이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이고 분석적인 연구로 전명수는 개신교 정신을 경영에 표방한 기업(신원과 이랜드)을 대상으로 하여 두 기업의 경영 이념이나 정신이 성장 이면에 숨겨진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이나 환경, 그리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 각 분야의 현실을 표면으로 끌어내어 새롭게 환기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¹⁰⁾ 최근의 연구로는 한국 경제 성장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정받는 우수한 인적 자본의 형성에서 기독교 학교 출신 학생들이 큰 역할을 했음을 밝힌 것이 있다. 한국은 일찍부터 매우 높은 수준의 인적자본을 축적하고 있었고, 이러한 초기 인적 자본의 형성은 후에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¹¹⁾

7) 김향섭, 「종교와 경제의 관계의 연구사와 그 현대적 의미에 대한 고찰」(『종교문화연구』 3, 2001), p. 340.

8) 우혜란, 「신자유주의와 종교문화의 상품화」(『종교문화비평』 13, 2008), pp. 91-130.

9) 노치준·강인철, 「해방 후 한국사회 변동과 종교」, 『해방 후 한국사회의 구조적 변동과 사회발전』(한국사회학회·한국사회사학회 공동 주최, 광복 50주년 기념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995), pp.166-167.; 노길명, 『한국의 종교운동』(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2005), pp. 253-254.

10) 전명수, 「한국의 경제 발전과 개신교의 역할에 관한 고찰: (주)신원·이랜드의 기업문화를 중심으로」(『종교연구』 36, 2004), pp. 407-435.

종교와 경제 관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대체로 기독교가 중심이고 자료 역시 기독교 측에서 나온 것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는 불교 역시 경제와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음이 드러난다. 불교와 경제의 관계도 초점은 주로 불교적 이념과 윤리의 경제에서의 역할에 있었으나,¹²⁾ 경제활동의 수준을 측정하는 GDP나 GNP가 사회전체의 후생 또는 웰빙 수준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바로 그 점을 불교가 대신할 수 있다는 논의도 나왔다. 불교는 경제구성원의 삶의 질, 삶의 여건, 배분적 정의 등을 중심으로 이를 지속가능한 발전의 측면에서 철학적 기반과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¹³⁾

최근에는 기독교와 불교를 대상으로 한 '종교 사회적 기업'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권경임은 불교계 사회적 기업인 '(주)연우와 함께'의 이념과 비전에 의하면 대승불교의 자비의 철학을 바탕으로 함께 나누는 것(共有), 함께 일하는 것(共業), 함께 생활하는 것(共生), 하나 되는 것(共同)의 가치를 추구한다고 보았다.¹⁴⁾ 황병배는 사례연구를 통해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기독교 사회적 기업들의 공통요소를 분석했다. 그는 교회가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공동체로 그 본질적 사명은 선교이며, 그 선교는 총체적이어야 한다고 보면서 사회적 기업은 교회가 이러한 총체적인 선교를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¹⁵⁾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교와 경제의 관계는 경제에서의 종교 윤리의 필요성, 종교 교리에 포함되어 있는 경제관 추출, 나아가 종교기업 연구 등에 초점이 맞추어졌으나 종교와 경제 성장이 긴밀한 관계를 보여준다는 점은 아직 충분한 고찰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본고에서는 위의 세 가지 종교사회학적 논의를 고찰의 틀로 사용하면서 국내외에서 나온 경험적 연구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종교와 경제 성장과의 상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1) 김승욱, 「기독교가 한국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 『한국 사회의 발전과 기독교』, 손봉호, 조성표 편저(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2), p. 116.

12) 홍성민, 「불교와 경제-禪思想을 중심으로」(『한국선학』 24, 2009); 김안호, 「불교와 경제와의 관계에 관한 고찰」(『생활지도연구』 15, 1995); 이언오, 「불교와 경제의 만남: 현대 사원경제를 중심으로」(『대각사상』 4, 2001).

13) 임동순, 「경제발전, 경제적 성과 측정의 불교적 이해」(『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 17-1, 2011), pp. 149-169.

14) 권경임, 「불교계 사회적 기업과 복지경영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선문화연구』 10, 2011), p. 186.

15) 황병배, 「한국 기독교 사회적 기업 연구: 사례를 중심으로」(『신학과 실천』 32, 2012), pp. 755-780.

II. 세속화 논쟁과 경제 발전의 관계

1. 세속화론의 관점에서 제기된 종교의 위상 변화

세속화는 현대적 의미를 지닌 술어로서 1960년대 이후 많은 논쟁을 야기했고, 그 논쟁은 현재까지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세속화가 논쟁적인 것은 그것이 부분적으로 중요한 사회적 함축을 가졌고, 또한 세속화가 쉽게 그 자신을 개념적인 질량적 테스트에 빌려주지 않는 복합적 면모를 지닌 개념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¹⁶⁾ 다른 한편에서는 세속화 테제가 처음부터 실상과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사회과학자들의 주목을 받은 것은 기독교 자체의 변화와 지역별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한다.¹⁷⁾ 신앙의 시대(Age of Faith)로 불리던 시기와 지금의 기독교가 진정으로 달라졌다고 보는 관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많이 제기되고 있지만, 기독교가 장기간동안 보여준 침체를 종교의 쇠퇴로 보더라도 그것이 서구의 문제이지 세계 그 밖의 종교권의 전반적 특성은 아니라는 점은 피터 버거(Peter L. Berger)를 포함하여 많은 종교사회학자들이 동의한 바 있다.

먼저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 감소는 세속화를 근대화의 관점에서 접근한 경우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일반적으로 '정통모델'(the orthodox model)이라 불리는 세속화 모델은 종교의 세속화를 근대화 관점에서 논한 것으로, 크게 사회구조의 변동과 개인의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의 변동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사회적 분화와 사회화로, 후자는 합리화로 요약된다.¹⁸⁾ 이와 같이 세속화의 정통모델은 근대화가 그 뒤를 따라 '종교의 사회적 의미 감소'를 가져왔다는 것이지만, 세속화가 종교의 사회적 능력 저하로 단선적인 전개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비록 세속화가 근대화의 핵심에 위치하더라도 단지 그 세 가지 특성이 종교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일방적은 아니라는 반론 역시 제기되었다.¹⁹⁾ 동시에 20세기 들어

16) Roy Wallis and Steve Bruce, "Secularization: The Orthodox Model," Malcolm Hamilton(ed.), *The Sociology of Religion: Critical Concepts in Sociology*, Vol.IV (London & New York: Routledge, 2007), p. 174.

17) Rodney Stark, "Secularization, R.I.P.," Malcolm Hamilton (ed.), 앞의 책, p. 217.

18) Roy Wallis and Steve Bruce, 앞의 글, pp. 173-178.

19) David Herbert, *Religion and Civil Society: Rethinking Public Religion in the Contemporary World*(Aldershot: Ashgate, 2003), pp. 35-43.

오면서 나타난 기독교의 쇠퇴가 종교성에서 장기간에 걸친 쇠약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²⁰⁾

이러한 ‘세속화’ 이론에 대한 도전은 이미 1960년대 버거, 윌슨(Bryan R. Wilson), 루크만(Thomas Luckmann) 등의 세속화론이 나오기 시작하던 바로 동 시기에 나왔다. 그 도전의 핵심은 크게 종교인구가 감소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회의와 종교의 감소란 종교 제도의 참석과 같은 제도화에 대한 과도한 몰두 때문이라는 비판으로 나누어진다. 여기서는 먼저 종교인구의 문제를 다루고 후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한다(III). 쉬너(L. Shiner)는 그동안 사용된 세속화 슬어가 6가지 의미 또는 용도를 보여준다고 정리하면서 세속화 용어를 버리거나 좀 더 서술적이고 중립적인 용어인 분화(differentiation), 전이(transposition) 등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한 비판은 여러 가지 이유에 근거한 것이나 그중 중심은 세속화 논의가 확실한 데이터에 의해 밀받침되지 못했다는 점에 있다. 예로 세속화 용례의 첫 번째 항목인 ‘종교의 쇠퇴’에서는 기점의 문제와 측정의 어려움을 들었고, 두 번째 항목인 ‘현세에 대한 순응’에서는 측정의 모호성을 지적했다.²¹⁾ 쇠퇴를 확인하기 위한 정확한 종교인구의 수적 측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좀 더 적극적인 반대는 1980년대 제프리 헤이든(Jeffrey K. Hadden)에게서 나왔다. 헤이든은 세속화에 대한 믿음이 종교 신앙과 제도 종교의 다양한 표현들에 대한 깊고 변치 않는 적대감에 의해 유지되었다고 본다. 그는 사회과학자들이 세속화이론에 도전하도록 이끈 몇 비판적 사실들을 추적했는데 그중 하나가 세속화이론이 충분한 기간 동안 축적된 데이터에 의해 지지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그 데이터가 세속화이론에 의해서 예견된 역사적 과정을 입증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가 반론으로 든 예 중 하나가 가톨릭교도의 증가로, 중앙아메리카와 카리브에서 온 이주민들 때문에 1947년 미국 인구의 약 20%를 차지하던 가톨릭교도가 1985년에는 거의 30%를 점유했고, 이들은 더욱 증가 추세를 보여준다는 것이다.²²⁾ 세속화에 대한 찬반 논의는 1990년대 이후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으나 쟁점이 공적 영역에서의 종교 역할의 증대, 세속화의 개념, 종교의 역할과 기능의

20) Philip S. Gorski, “Historicizing the Secularization Debate: An Agenda for Research,” Michele Dillon (ed.), *Handbook of the Sociology of Religion*(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p. 112.

21) L. Shiner, “The Concept of Secularization in Empirical Research,”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6:2(1967), pp. 209-219.

22) J. K. Hadden, “Toward Desacralizing Secularization Theory,” *Social Forces* 65:3(1987), p. 588, pp. 599-601.

변화 등에 놓여진다.²³⁾ 이러한 논쟁들을 종합해보면 세속화론의 옹호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이 감소되었는지, 아니면 반대론자들의 이의 제기에서처럼 종교가 쇠퇴했다고 보는 것은 하나의 '신화'²⁴⁾에 불과한 것인지는 대부분 종교인구의 변동을 보여주는 '데이터'에 근거한다.

종교의 쇠퇴에 대한 주장에 이의를 제기한 학자 중 가장 주목을 끄는 인물은 버거였다. 그는 1960년대 세속화론의 제창자였으나 90년대 말 과거 세속화이론이 종교의 쇠퇴에 근거했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기존 견해를 수정했다. 그는 오늘날의 세상도 상당할 정도로 종교적이며, 몇몇 지역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종교적일 뿐만 아니라 신구(新舊) 종교 모두에서 해당 신앙과 의례가 개개인의 삶의 차원에서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했다. 오늘날 종교는 오히려 탈세속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이는 역사가들과 사회과학자들에 의해 '세속화론'이라고 막연히 불리던 문헌들의 전체적인 틀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근대화가 불가피하게 사회적 차원과 개인적 의식 차원 모두에서 종교의 쇠퇴를 낳는다는 세속화의 핵심 개념은 오류로 드러났다는 주장이다.²⁵⁾ 여기서 그가 파악하고 있는 세계의 종교 현황은 대부분이 보수적이거나 정통파 혹은 전통주의적인 운동들로서, 그는 주로 기독교 복음주의와 이슬람교를 거론했다.

이렇게 보면 세속화 논쟁에는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 문제가 중심에 놓여진다는 점이 드러나거니와, 그것은 종교인구의 변동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2. 종교인구의 변동과 경제 발전

세속화 논쟁에서 이를 동의하는 쪽에서는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종교인구 역시 감소된 것으로 본다. 근대화론에서 산업화, 도시화, 또는 제도적 분화, 합리화에 의해 종교의 힘이 약화되었다고 간주하는 것은 경제 성장과 종교의 감소가 함께 간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종속변수로서의 종교의 이론을 수요 측과 공급 측 모델로 나눌 때 수요 측 모델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근대화론

23) 정희완, 「세속화, 세속주의, 그리고 그리스도교: 세속주의 문화와 새로운 복음화」, 『현대 세계의 문화 상황과 신앙 교육』(제2회 새로운 복음화 세미나 자료집, 2013), pp. 16-28.

24) Peter E. Glasner, *The Sociology of Secularisation: A Critique of a Concept*(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77), pp. 5-10.

25) 피터 버거 엮음, 『세속화냐? 탈세속화냐?: 종교의 부흥과 세계 정치』, 김덕영·송재룡 옮김(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p. 15.

의 핵심에 위치하는 세속화 모델이다. 이 모델에서 경제 발전은 형식적인 종교서비스에 참석하거나 개인이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줄이게 하고, 종교 신앙을 저하시키며, 정치와 통치에 대한 조직화된 종교의 영향을 감소시킨다.²⁶⁾ 말하자면 이것은 종교에 바쳐졌던 인구의 힘이 경제활동으로 전환되었다는 의미로, 종교인구의 변동은 결국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길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속화 논의에 도전한 이들은 그 논의가 기독교만을 대상으로 한 데에서 나온 것일 뿐이고, 기독교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그것이 장기간의 침체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그것은 종교인구의 변동을 뒷받침해야 하는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으로, 이것은 단기간의 통계로는 알 수 없는 것이다. 다행히 미국에서는 한 지역의 종교생활을 장기간 조사한 자료가 있다. 한 작은 마을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그 신뢰도가 높을 수는 있으나 이 작은 마을이 보여준 특성을 전국으로 확대시킬만한 대표성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여전히 문제가 된다. 1920년대 전형적 공동체의 생활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미국 중서부의 미들타운이란 이름을 붙인 곳에 정착하여 그곳 교회들에 의해 표상된 종교 생활을 살펴보았다. 그들은 1935년 대공황에 이 마을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보기 위해서 다시 미들타운으로 갔는데, 이 시기의 종교 생활은 이전에 비해 감소된 듯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들이었고, 마치 경제적 침체를 반영하듯이 좀 더 수동적인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1970년대에 행해진 미들타운의 재연구에서는 1924년과 1978년 사이 15번의 시리즈로 구성된 종교 데이터에서 그 추세가 하향된 것은 단지 2번뿐이고, 3번 이상이 아무런 동향을 보여주지 않았으며, 나머지 10번(전체의 67%)은 상승 커브를 보여주었다.²⁷⁾ 1920년대보다 1970년대의 미들타운에서 더 큰 종교성을 보여준 것으로, 이로 보면 종교는 쇠퇴한 것이 아니라 성장한 것이다.

한국의 경우 1980년대부터 2012년 사이에 발표된 종교인구 통계는 조사자에 따라 그 증가와 감소가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나 대체적인 추세를 파악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 통계청에서 10년에 한 번씩 조사한 자료에서는 우리나라 종교인구가 1985년 42.6%, 1995년 50.7%, 2005년 53.1%로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다음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한미준)²⁸⁾과 한국갤럽에서

26) Rachel M. McCleary and Robert J. Barro, 앞의 글, p. 49.

27) William H. Swatos, Jr. and Kevin J. Christiano, "Secularization Theory: The Course of a Concept." *Sociology of Religion* 60:3 (Autumn 1999), p. 215.

28) 2005년 한미준이 한국갤럽 리서치와 더불어 한국 기독교인의 교회생활과 신앙생활을 분석하는 설문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2004년 9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1개월간 한 설문조사는 전국 6대 도시에 사는 만 18세 이상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각

1984년, 1989년, 1997년에 이어 2004년에 행한 제4차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의 조사연구에 의하면 1984년 한국의 종교인구가 43.8%²⁹⁾, 1989년 49.0%, 1997년 46.9%, 2004년 53.5%로, 1990년대 하반기에 약간의 감소가 있었으나 그 외에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준다.³⁰⁾ 반면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이하 한목협)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종교인구의 변화 추이가 1984년 43.8%, 1989년 49.0%, 1998년 52.8%, 2004년 57.0%, 2012년 55.1%이다. 갤럽 조사와 달리 이 조사에서는 1990년대에도 감소가 없었던 것으로 나왔으나 반면 최근에는 종교인구가 하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³¹⁾ 통계청과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류성민의 조사에서는 총인구대비 종교인구 비율이 1985년 42.6%, 1995년 50.7%, 2005년 53.1%여서 이 시기까지는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준다.³²⁾

이상에서 보여준 통계들은 2012년 현재 우리나라 종교인구의 변동이 상호간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그 신뢰성에 문제가 있음을 전제하더라도 현재 종교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의 과반을 약간 상회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또한 종교인구의 수적 추세로 볼 때는 간혹 감소를 보이기는 하나 대체로 점진적 증가로 판단될 수 있다. 국민의 절반이 종교인이라 하더라도 이들을 모두 노동력으로 간주할 수는 없을 것이고, 또한 종교인구가 얼마나 경제적 이행에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것 역시 종교마다, 개인마다 다를 것이다. 단지 종교인구가 성별로 2005년도 기준 남자 46.7%, 여자 53.3%이고, 연령별로는 50대 이후가 60%를 넘는 반면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 20대(49.2%), 30대(47.9%)가 이들보다 15% 정도가 낮다는 점은³³⁾ 종교인구가 총인구의 과반을 넘기는 하나 성비나 연령별 차이로 볼 때 경제인구의 비율은 조금 더 낮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 종교인구의 통계에 근거해서 같은 시기 경제성장률을 살펴보면 1986년 경제성장률은 12.2%, 1998년 -5.7%, 2003년 2.8%, 2010년 6.3%, 2011년

각 1000명씩을 대상으로 했다.

29) 문공부가 1983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우리나라의 종교인구는 전체 인구의 39.29%이다. 《경향신문》 1984. 2. 24.

30) 한국갤럽조사연구소(<http://www.gallup.co.kr/>), 「2004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①」

31)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http://kpastor.org/>), 「2012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의식조사 요약 보고서」(2013. 1. 31)

32) 류성민, 「한국 종교인구 분포 비율의 변화와 그 특징: 1985년, 1995년, 2005년의 인구센서스를 중심으로」(『종교연구』 56, 2009), p. 28.

33) 같은 글, pp. 31-32.

3.6%로 나온다.³⁴⁾ 1980년에는 오일 쇼크가 있었으나 3저호황(저유가, 저금리, 저환율)으로 경제가 성장했고, 1997년에는 IMF로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1998년에는 자살한 사람이 10만 명 당 하루 23.6명이 되는 등의 후유증을 겪었다.³⁵⁾ 우리나라는 곧 이를 회복하여 높은 경제성장률(1999년 10.7%)을 보여 주었으나, 2003년에는 비정규직 비율이 30%를 돌파하고 2010년 자살률(10만 명 당 하루 28.1명)은 OECD 국가 중 1위였다. 자살의 이유는 다양하겠으나 경제 불황 시 자살률의 급증은 경제문제와 무관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2009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성장률이 둔화되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위에서 보여준 경제성장률의 추이를 조사 연도(1985, 1995, 2005)가 경제성장률 조사 연대와 맞지 않는 통계청 자료는 일단 제외하고 한미준과 한목협의 통계와 개별적으로 적용해보면 한목협의 것은 종교인구가 1990년대 말 경제적 위기를 반영하지 못했고, 한미준의 경우는 최근의 경제 위기에도 종교인구는 대체로 점진적인 증가를 나타내서 종교인구와 경제성장률 사이의 긴밀성을 보여주지 못한다. 그러나 이 두 통계를 통합해서 살펴보면 경제성장률이 하강하던 시기에 종교 신자의 수 역시 미묘하기는 하지만 감소되었음이 드러난다. 한미준과 갤럽의 조사에서는 IMF 경제위기 시 종교 신자가 약간 감소했고, 한목협과 글로벌리서치의 조사에서는 경제 성장이 둔화된 최근 신자 수가 약간 하락했다. 여기서 특히 1998년과 2004년의 통계 수치가 주목되는 것은 전술한 대로 전자는 IMF 경제위기 속에 많은 실직자와 자살자가 나온 시기이고, 후자는 IMF에서 벗어났으나 비정규직이 사회문제화되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종교인구의 감소가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동인이 된 것으로 보는 기존 세속화론이 문제가 있음을 말해준다. 종교인구의 증가와 함께 이루어진 경제 발전은 종교의 사사회와 신앙의 측면에서 그 관련성이 어느 정도 보완될 수 있다.

Ⅲ. 종교의 사사회와 신앙의 측면에서 본 경제 발전

1960년대 종교의 사사회가 제기된 것은 종교 인구의 감소보다는 종교의 공적 영향력이나 사회적 영향력이 이전에 비해서 약화되고 있음을 인식했기 때문으로

34) 《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2013. 1. 9. “역대 정부별 GDP-세계경제 성장률·1인당 GNI 증가율”

35)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0. 3. 24. “종교지도자 자살예방 대국민 성명 발표”

볼 수 있다. 1960년대 세속화 논의를 주도했던 종교사회학자 버거, 윌슨, 루크만 모두 종교가 공적 영역에서 사적 차원으로 내려왔으며, 종교적인 의례, 제도 등이 사회적 중요성을 상실하거나 역으로 사회가 종교적 제도와 상징에서 벗어났다는 점을 제시했다.³⁶⁾ 이와 상반적으로 카사노바(J. Casanova)는 1990년대 초에 쓴 논문에서 이란의 이슬람혁명, 폴란드의 연대운동(Solidarity Movement), 선거 정책의 한 요인으로서의 미국 기독교 근본주의 운동의 출현, 니카라과 혁명과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갈등에서의 가톨릭 교회의 역할 등을 주요 사례로 들며 종교의 탈사사회 현상에 대해 거론했다.³⁷⁾

이것은 1960년대 이후 특히 서구에서는 종교의 사사회와 탈사사회가 공존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종교의 공적 역할의 지속이나 사적 역할로의 부각이 신앙의 정도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위에서 거론한 것처럼 서구에서도 '신앙의 시대'(Age of Faith)가 실제로 존재했었는지에 대한 회의가 있지만, 만약 존재한 적이 있었다고 해도 기껏해야 전체 국민을 기독교화 하려는 심각한 시도가 있었던 19세기 몇 십 년 정도일 뿐으로 주장되기도 한다.³⁸⁾ 이것은 과거가 좀 더 종교적이었다는 전제를 가진 세속화론에 대한 이의 제기이기도 하지만 마찬가지로 사사회나 탈사사회는 개인의 신앙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기서 종교 신자가 사찰·교회·성당 등이 주관하는 공식적 예배의식에 모두 참여하는 이들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으로, 최근 교회에 '안나가'는 신자들을 역으로 일컫는 '가나안'들이 증가하고 있어,³⁹⁾ 종교의 사사회라는 개념 속에는 각 종교의 공적 예배에 참석하여 그 의례를 따르지 않고 개인적인 기도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단 예배 참석률과 경제 발전의 관계와, 동일한 예배 참석의 조건 하에서 신앙의 차이가 경제 발전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고찰한 결과 예배 참석이 많을수록 경제 성장에 부정적 계수를 나타냈다. 이러한 부정적인 관점은 무엇보다 예배를 드리는 종교적 장소, 즉 교회라든가, 성당, 사찰 등이 "조직화된 종교 서비스를 통해 사회적 네트워크와 사회적 자본의 수립에 기여하는"⁴⁰⁾ 사회기구로

36) K. Dobbelaere, "Secularization Theories and Sociological Paradigms: Convergences and Divergences," *Social Compass* 31:2-3, 1984, pp. 201-204.

37) J. Casanova, "Private and Public Religions," *Social Research* 59:1 (Spring 1992), p. 19.

38) William H. Swatos, Jr. and Kevin J. Christiano, 앞의 글, pp. 219-220.

39) 《조선일보》 2013. 5. 3.

40) Robert J. Barro, 앞의 글, p. 67.

서 존재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뒤 브아(W.E.B. Du Bois)는 모든 종교기관들이 단지 경배와 기도의 집 이상으로, 공동 활동과 사회적 결속을 위한 중추이거나, 혹은 '사회적 공간'(social space)이라고 보았다. 그는 모든 기관들이 사회적 교섭을 위해 모여든 사람들의 집이어서 교회의 좀 더 깊은 목적은 자주 공동체, 사회적 성취를 제공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⁴¹⁾ 그러나 최근에는 특히 도시의 종교기관들의 경우 이와 같은 교류의 역할 내지는 사회적 네트워킹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업의 사용자 측의 입장에서는 예배 참석이 노동시간의 측면에서 경제 활동에 보다 더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1990년대 초 개신교 기업인 신원이 "일요일은 쉽니다"라는 TV 광고를 낸 적이 있고 이것이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것은 1970년대 이후 산업화 사회에서 노동자들의 지나친 노동시간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일주일에 하루의 휴일은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시간이었으나 반면 이것은 기업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포기할 수 없는 시간을 희생한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었다. 한목협외의 조사에서는 인터넷 영상 예배 등에 의한 주일예배 대체 경험율이 1998년 11.0%, 2004년 13.0%, 2012년 16.0%로 점진적인 증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대체 예배는 여행이나 질병 등의 이유 때문일 수도 있으나 그중 얼마는 경제활동 참여와도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기독교의 경우 예배 참석의 비중이 매우 높다. 2005년도 한미준의 조사에서는 피전도자가 전도 후 처음 참석한 모임은 주일예배가 87.8%이고, 기존 교인의 경우 주일 대예배를 매주일 참석한다는 응답자는 66.3%였으나 그중 예배만 드린다고 응답한 신자가 55.1%였다.⁴²⁾ 한목협외와 글로벌리서치의 1998년 조사에서는 교회 출석률이 88.3%였고, 2004년에는 88.4%로 별 변동이 없었으나 2012년에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독교인이 2004년과 비교할 때 1.1% 증가한 89.5%로 이전에 비해 오히려 그 비율이 높아졌다. 이러한 꾸준한 예배 참석률은 크게는 1998년과 약간의 하강을 보여준 최근의 경제성장률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베로(Robert J. Barro)는 동일한 수준의 예배 참석을 했을 경우 경제는 어떤 종교신앙이 증가할 때 성장한다고 하면서,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것처럼 보이는 신앙으로 지옥, 천당과 사후에 관련된 것들을 들었다. 좀 더 광범위한 그룹의 나

41) Phil Zuckerman, "The Sociology of Religion of W.E.B. Du Bois," *Sociology of Religion* 63:2(2002), pp. 247-250.

42) 《기독신문》(http://www.kidok.com) 2005. 2. 1.

라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사람들의 평균 비율은 80%이나, 이에 비해 지옥신앙과 천당신앙은 각각 38%와 55%, 사후신앙은 58%이다.⁴³⁾ 내세에 대한 믿음이 강할수록 현재 수행하는 경제활동에 좀 더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된다는 것인데, 위의 통계는 신자들 중 적게는 절반 이하, 많게는 60%에 가까운 신자들이 내세신앙에 기반한 성실한 노력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워너(R. Stephen Warner)가 인용한 조사(1990, 1991)에서 미국인의 90%가 하나님을 믿고, 70%가 사후를 믿으며, 거의 90%가 매일 기도하고, 40%가 매주 교회에 나간다고 한 통계에 근거하면⁴⁴⁾ 1990년대에서 2000년 사이 미국은 종교 자체만이 아니라 사후신앙 역시 점차 쇠퇴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 조사에서 종교(기독교)를 믿는 이유로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45.5%)를 첫 번째로 꼽았으나 2012년 조사에서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38.8%)를 첫 번째로 들었고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는 31.6%로 13.9%가 낮아졌으며, 반면에 '건강, 재물, 성공 등 축복을 받기 위해서'라고 답한 응답자가 18.5%를 차지해 10% 증가했다.⁴⁵⁾ 여기서 구원이나 영생은 천국신앙과 지옥신앙을 아울러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구원과 영생에 대한 믿음은 차츰 낮아지고 있고, 반면 현세에서의 물질적 번영에 대한 바람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 인용한 대로 배로는 특히 지옥신앙과 천국신앙, 그리고 사후신앙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았거니와, 현세의 복을 자신들이 믿는 종교의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기복신앙이 동일하게 경제활동의 적극성과 성실성을 상승시킬 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기복신앙은 기독교와 불교에서 공통으로 나오고 있는데, 기복이 기도나 치성, 물질적 헌납에 더 치우칠 경우 이것은 발전에 오히려 부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IV. 합리적 선택 이론에 근거한 신종교의 성장과 영적 시장의 확대

종교인구의 변동과 함께 또 한 가지 주목할 문제는 신종교에 관한 부분이다.

43) Robert J. Barro, 앞의 글, p. 66.

44) R. Stephen Warner, 앞의 글, p. 1046.

45)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http://kpastor.org/>), 「2012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의식조사 요약 보고서」(2013. 1. 31)

1970년대만 해도 신종교의 발흥을 주목하거나 증시한 학자들은 많지 않았다. 윌슨은 이 시기 사이언톨로지, 잠재능력 개발 운동, 동양종교들의 재해석 같은 새로운 종교운동의 흐름을 포착했으나 그 중요성을 간과했다.⁴⁶⁾ 펜(Richard K. Fenn) 역시 강신술(spiritualism)이나 개인적 성장과 가족의 조화와 같은 문제들에 초점을 둔 새로운 종교운동은 복합적인 사회통합과 합법화를 위해 아무런 주요 기능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절하 했다.⁴⁷⁾ 신종교가 세속화 논의에서 부각된 것은 1980년대에 들어와서로, 여기에 선두주자가 된 학자는 스타크(R. Stark)와 베인브릿지(W. S. Bainbridge)이다. 그들은 세속화가 새로운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모든 종교경제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전통 교회의 감소는 처음 섹트 변수들의 성장에 의해 그리고 그 후에는 컬트 혁신의 성장에 의해 대체될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그들은 세속화를 자기 제어적(self-limiting) 과정으로 간주한다.⁴⁸⁾

따라서 그들은 종교가 쇠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러한 주장은 학자들이 근대사회에서 지배적인 종교전통과 일반 종교현상을 잘못 동일화한 데에 기인한다고 본다. 주요 기독교, 유대교 기관들이 쇠퇴하고 있다고 주목한 것은 옳바르지만, 그러나 덜 '존경할만한' 구역에 있는 종교[신종교]의 힘을 보지 못하거나 평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현대 전통종교의 수행이나 침투의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신종교운동의 활동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으로, 이렇게 종교가 지속될 것이라는 확신은 그들에게 종교만이 인간의 강렬한 욕망에 대한 많은 보상의 원천이고, 종교만이 인간이 받는 이 생애에서의 고통을 다음 생애에서 보상받게 할 수 있어, 결국 보상자(compensator)로서의 초자연적 존재인 신들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관점에서 오는 것이다.⁴⁹⁾

이와 같이 개인들이 종교가 어떤 종류의 이득이나 보상을 준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종교로 돌아서게 된다는 관점은 '합리적 선택 이론'(rational choice theory)의 기반이 되었다. 이 이론에 의하면 근대화는 종교적 활력과 무관하고 오히려 종교 신앙과 수행이 시장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으로, 종교 요구가 있는 정

46) 브라이언 윌슨, 『현대의 종교변용』, 윤원철 옮김(서울: 전망사, 1984), pp. 139-142.

47) R. K. Fenn, "Towards a New Sociology of Religion,"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11:1(1972), p. 31.

48) R. Stark and W. S. Bainbridge, *The Future of Religion: Secularization, Revival, and Cult Formation*(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5), pp. 429-430.

49) R. Stark and W. S. Bainbridge, "Towards a Theory of Religion: Religious Commitment,"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19:2(1980), pp. 117-123; R. Stark and W. S. Bainbridge, *The Future of Religion: Secularization, Revival, and Cult Formation*, p. 429.

도는 다른 물품들과 같이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종교상품의 풍부함과 다양성에 의존한다고 본다. 사회적 행위자들은 그들의 보상을 최대화하고 그들의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어서 종교에서도 동일하게 가장 많은 이득이나 보상을 준다고 간주하는 그룹과 운동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보상자에 대한 욕구와 선택 때문에 종교 간 또는 종파 간 영적 시장에서의 대결이 치열하게 벌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종교의 쇠퇴와는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많은 경쟁자들이 각기 적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경쟁력을 증가시키고, 이에 따라 종교적 활력이 부양된다는 것이다. 워너(R. Stephen Warner)는 이 이론이 서구 유럽에서 진행된 종교변동의 경험을 설명하기 위해 전개된 구페러다임(세속화)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미국 역사에 의해 전적으로 독립된 비전에서 유래된 신페러다임으로 본다.⁵⁰⁾

그러나 사람들이 종교를 선택하는 데에 그렇게 계산적인지가 의문이다. 합리적 행위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구하는 것이라면 엄격하고 보수적인 종교들은 왜 높은 수준의 종교 서약을 요구하고, 그 운동의 참여자들은 그들의 종교 수행에 왜 그렇게 많은 노력을 바치고 엄격한 훈련을 받아들이는가. 이 이론의 주장자들은 그 이유가 그들이 그러한 종교 활동이 더 많은 이득을 제공할 수 있고, 제공 받을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특정 종교를 선택하게 되는 그 '이득'이란 과연 무엇일까. 사람들이 물리는 종교나 종파를 보면 지도자의 메시지, 화법, 질병 치유 능력 같은 것이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확실히 이들은 영적 시장의 중요한 상품들이다. 그러나 기성종교는 물론이지만 신종교를 추종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들이 선택한 종교나 종파가 어떻게 '쓸모 있는'가를 보기보다는 얼마나 '진실한' 것인가를 본다는 점에서 상품 구매와는 차이가 있다. 여기서 진실이란 신앙을 사회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산출된 미덕으로 보고, 잠재적 종교 소비자들은 그러한 신앙의 상호작용을 통해 집단적으로 그 미덕을 산출하고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⁵¹⁾ 그럼에도 합리적 선택 이론가들은 공급측면을 왜 사람들이 종교적이 되는가 하는 학문적 논쟁으로 가져옴으로써 종교사회학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⁵²⁾

50) R. Stephen Warner, "Work in Progress toward a New Paradigm for the Sociological Study of Religion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8:5(1993), p. 1045.

51) Carl L. Bankston III, "Rationality, Choice and the Religious Economy: The Problem of Belief," *Review of Religious Research* 43:4(2002), p. 311.

52) Inger Furseth and Pål Repstad, *An Introduction to the Sociology of Religion* (Burlington, VT: Ashgate, 2006), p. 119.

그러나 신종교 연구가들이 종교는 쇠퇴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쇠퇴처럼 보이는 부분은 신자들이 합리적 선택에 의해 신종교로 이동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과 달리 기성종교에서 감소된 신자 수가 신종교로 모두 옮겨진 것이 아니라는 통계가 제시되었다. 월리스(R. Wallis)와 브루스(S. Bruce) 두 연구자가 제시한 자료에 근거하면 지배적인 전통 안에서 보수적인 교회는 1970년과 1975년 사이에 50만 이상 교인을 잃었으나, 성장하고 있었던 보수주의적 교회는 총체적인 손실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같은 시기 14,000명의 새 신자를 얻었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15년 이상 영국교회 신자들은 전체적으로 약 150만 명, 폴타임 목사들의 수가 4,000명 감소하고, 약 3,000개의 교회 건물이 폐쇄되었으나 이러한 감소가 섹트와 컬트의 증가를 가져오지 않았다고 한다.⁵³⁾ 이들의 논의에는 뉴에이지(New Age)와 같은 개인주의적 영성운동에 대한 고찰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세속화를 기독교 중심에서 종교 일반으로 확대할 때 신종교는 종교의 다원주의를 설명하는 핵심으로 무엇보다 종교간 경쟁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신종교운동의 하나로서 개인주의적 영성운동의 대표적인 뉴에이지⁵⁴⁾는 특히 기독교가 중시한 내세 구원사상이나 영생의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여 그 추종자들을 모았다는 점에서 기성종교와 신종교 간 치열한 대결을 보인 영적 시장의 핵심은 '내세(來世)'의 문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기독교가 뉴에이지에 가장 크게 반발한 것은 사후에 대한 관점의 차이였다.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외에는 지옥과 천국을 선택할 자율성을 주지 않으나 뉴에이지는 인간에게 영력이 있고 이것은 사후에도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뉴에이지는 인간이 갖고 있는 영력이 생과 사, 전생과 미래를 인식하는 힘이라는 점을 통해 그간 기성종교가 해결해주지 못한 영역을 비집고 들어가 그 존재기반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 영적 시장에서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뉴에이지는 다양한 대중문화활동을 전개한다. 〈사랑과 영혼〉 같은 영화는 인간이 누리는 사후의 삶을 묘사하고, 명

53) Roy Wallis and Steve Bruce, 앞의 글, p. 186.

54) '뉴에이지'란 명칭은 학술적인 논문이나 저서에서는 현재에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 운동의 출현과 성장에 기여하고 지금도 영적 공동체의 세계적 중심지로 간주되는 핀드혼(Findhorn)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영미권을 중심으로 한 서구 출판계나 서적상들이 1990년대에 들어가면서 뉴에이지의 제목을 없앤 것은 그것이 갖는 부정적 함축, 특히 출판사의 타겟인 주류독자들 사이에 갖는 부정적 인식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그 대신 선택된 것이 가치중립적인 '마음·몸·영혼'(mind·body·spirit)이다. 전명수, 「'마음·몸·영혼'과 사회에 대한 뉴에이지적 접근」(『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50, 2011), p. 127.

상서적들은 인간의 영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준다. 인간이 생과사를 넘나들고, 현세에 살면서 전생을 인식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뉴에이지 대중문화를 창안한 것이다. 대중화된 명상 수련 역시 우주의 원기력이 자신의 신체와 정신의 원기력과 유통된다는 기본 원리 위에 수행되는 것이다. 자신의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평화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마침내 생과사의 경계까지 허물면서 모든 것이 하나라는 일체성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후세계, 영계와 현실과의 소통, 임사체험, 환생 등은 모두 대중문화에서 즐겨 다루는 주제이고 영역으로, 뉴에이지 정신을 대변해 주는 것이다. 뉴에이지 상품들은 인간의 전생에 대한 호기심뿐만 아니라 내세에 대한 욕망을 교묘히 자극하고 이용하여 이익 창출을 도모하면서 뉴에이지를 지금까지 존속시키는 힘이 되었다.⁵⁵⁾

이러한 점에서 뉴에이지 대중문화가 부지불식간에 기성종교, 특히 기독교의 교리를 좀먹어간다는 사실이 드러나거니와 기독교 측에서도 대중문화의 활용을 통해 뉴에이지에 대항해야겠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을 보면⁵⁶⁾ 결국 이는 기성종교와 신종교 간의 영적 시장에서의 싸움으로 볼 수 있다. 서적, 분향, 심령술, 점성술 등을 포함해서 영성을 키우는 다양한 물품을 만들어 파는 뉴에이지숍이 세계 각국에서 성업 중으로, 영적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기성종교와 신종교 간의 싸움은 이렇게 물품 판매시장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뉴에이지 상품화를 세속화된 상업주의적 개인주의의 결정체로 보기도 하고, 반대로 성화된 가치 지향적이고, 사회적이며 공적인 것으로 간주하기도 하는 서로 상반된 시각을 보여준다.⁵⁷⁾

폴 힐러스(Paul Heelas)는 “번영과 뉴에이지 운동”이란 논문에서 ‘영적 경제학(spiritual economics)의 효력’이라는 부제를 붙여서 신종교와 경제기관 사이에 복잡적이고 때로 놀랄만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그의 인식은 통일교 등 다른 신종교를 통해서도 입증될 수 있다. 그러나 힐러스는 여기서 뉴에이지의 영성 측면보다는 영적 가르침과 수행이 경제적 효과에 기여하거나 기여하지 않는 좀 더 일반적인 방식을 성찰하는 데에 초점을 둔다. 힐러스는 뉴에이지 활동들이 세계거부(world-rejecting)에서 세계긍정(world-affirming)으로 향한 스펙트럼을

55) 전명수, 「뉴에이지 운동과 종교사회학의 지평」(『한국학연구』 32, 2010), pp. 350-363.

56) 신상연, 「뉴 에이지 운동은 과연 교회에 영적 위기를 줄만한 정도인가?」(『활천』 468, 1992), p. 15.

57) 전명수, 「뉴에이지 운동에서의 개인과 사회: 사회학적 접근」(『한국종교』 32, 2008), pp. 64-74.

보여주는 것으로 간주했다. 세계를 거부하는 스펙트럼의 끝은 자본주의적 주류에서 삶의 오염된 결과를 피하는 데 강조를 두고, 대조적으로 세계를 긍정하는 스펙트럼의 끝은 이 세계에서 번영을 중시한다. 이 두 극단 사이에서 뉴에이지는 대부분 두 세계의 최고를 경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친다.⁵⁸⁾

뉴에이지는 위에서 거론한 바와 같이 한편으로 대중문화를 통한 자기 존재의 확신과 번영을 성취하고, 다른 한편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그중 특히 뉴에이지 상품을 제작 판매하여 부를 축적한다. 뉴에이지 시장에는 명상기관, 영적 공동체, 출판사, 뉴에이지숍과 많은 이벤트가 포함되거니와, 뉴에이지 상품 중에는 현재 종교적 관점과는 무관하게 일반인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것들이 많다. 명상은 이미 뉴에이지에 대한 언급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일상화되었고, 허브, 아로마 같은 풀도 이제는 뉴에이지 상품이라는 한계에서 벗어났으며, 태교 음악을 포함한 뉴에이지 음악 역시 일반인들에게 뉴에이지와는 무관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합리적 선택 이론이 보여준 종교경제의 개념은 점차 경제 일반으로 전환되어 경제 성장의 일익을 담당하는 양상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이 연구는 종교변동과 관련된 세속화론, 사사회론, 합리적 선택 이론에 기반하여 종교인구, 공적 예배의 참석과 사후신앙, 그리고 신종교의 성장을 중심으로 종교와 경제 발전과의 관계를 고찰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이것은 종교사회학적 관점에서 경제 발전, 더 나아가 사회 발전을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흥미 있는 것은 세속화 논의 찬반 중 두 방향 모두 경제 발전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세속화론자들은 종교인구의 감소를 통해 그 감소된 인구를 모두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이들로 환산한다는 점에서, 반대론자들은 종교인구의 지속적인 성장과 종교인들의 특성이나 작업윤리가 경제 성장의 기제가 된다는 점에서 모두 경제 발전에 유의미하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종교의 사사회 논의는 신자의 수적 추이보다 종교의 공적 제도나 의례가 개인적 차원으로 내려왔으나 이것이 신앙의 감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어서 종교인구 역시 큰 변화가 없음을 내포하고 있다

58) Paul Heelas, "Prosperity and the New Age Movement: the efficacy of spiritual economics," Bryan Wilson and Jamie Cresswell (eds.), *New Religious Movements: Challenge and Response*(London: Routledge, 1999), p. 53.

는 것이다. 경제활동에서 중요한 것이 신자들의 믿음이라면 이 역시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합리적 선택 이론에서 제기된 신종교는 그것이 기성종교의 신도 감소를 어느 정도 대체했는지와는 별도로 기성종교의 중심 교리인 내세의 문제에 도전함으로써 영적 시장에서의 경쟁을 일으키고 있고, 이를 중심으로 한 경제활동 역시 활발하게 전개시키는 동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와 경제 발전의 긍정적인 관계를 인정한다면 앞에서 제시한 대로 종교의 힘이 강할수록 가난하고, 부유한 나라일수록 종교의 영향력이 감소한다는 퓨 리서치 센터의 2002년 보고서의 내용을 재고하게 된다. 보고서에 의하면 아프리카는 10명 중 8명이, 남미는 아르헨티나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 무슬림국가는 10명 중 아홉 명이 종교를 그들의 삶에서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반면 서유럽에서는 종교의 위상이 퇴조했으나 미국만이 부유한 나라 중 종교가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일한 나라라고 본다.⁵⁹⁾ 이것은 본 논의의 중심들이 된 이론들이 함축하는 대로 종교 인구의 변동이 종교간 내지는 지역·인종별 차이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신자들의 천국과 지옥, 사후의 삶에 대한 신앙이 상대적으로 깊지 않아서인지, 또는 종교와 경제의 관계에 대한 보다 새로운 인식의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주제어: 종교와 경제 발전, 세속화, 사사화, 합리적 선택 이론, 영적 시장, 신종교

원고접수일: 2013년 10월 30일

심사완료일: 2013년 11월 27일

게재확정일: 2013년 12월 12일

59) PewResearch Global Attitudes Project, <http://www.pewglobal.org/2002/12/19/among-wealthy-nations/>

참고문헌

- 권경임, 「불교계 사회적 기업과 복지경영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선문화연구』 10, 2011.
- 김승욱, 「기독교가 한국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 『한국 사회의 발전과 기독교』 (손봉호, 조성표 편저),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2.
- 김안호, 「불교와 경제와의 관계에 관한 고찰」, 『생활지도연구』 15, 1995.
- 김종서, 「종교와 경제간 상관관계론의 현대적 의미」, 『종교학연구』 17, 1998.
- 김항섭, 「종교와 경제의 관계의 연구사와 그 현대적 의미에 대한 고찰」, 『종교문화연구』 3, 2001.
- 노길명, 『한국의 종교운동』,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2005.
- 노치준·강인철, 「해방 후 한국사회 변동과 종교」, 『해방 후 한국사회의 구조적 변동과 사회발전』 (한국사회학회·한국사회사학회 공동 주최, 광복 50주년 기념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995).
- 류성민, 「한국 종교인구 분포 비율의 변화와 그 특징: 1985년, 1995년, 2005년의 인구센서스를 중심으로」, 『종교연구』 56, 2009.
- 버거, 피터 엮음, 『세속화냐? 탈세속화냐?: 종교의 부흥과 세계 정치』 (김덕영·송재룡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 베버, 막스,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김덕영 옮김), 서울: 도서출판 길, 2010.
- 신상언, 「뉴 에이지 운동은 과연 교회에 영적 위기를 줄만한 정도인가?」, 『활천』 468, 1992.
- 우혜란, 「신자유주의와 종교문화의 상품화」, 『종교문화비평』 13, 2008.
- 윌슨, 브라이언, 『현대의 종교변용』 (윤원철 옮김), 서울: 전망사, 1984.
- 이연오, 「불교와 경제의 만남: 현대 사원경제를 중심으로」, 『대각사상』 4, 2001.
- 임동순, 「경제발전, 경제적 성과 측정의 불교적 이해」,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 17-1, 2011.
- 전명수, 「한국의 경제 발전과 개신교의 역할에 관한 고찰: (주)신원.이랜드의 기업문화를 중심으로」, 『종교연구』 36, 2004.
- 전명수, 「뉴에이지 운동에서의 개인과 사회: 사회학적 접근」, 『한국종교』 32, 2008.
- 전명수, 「뉴에이지 운동과 종교사회학의 지평」, 『한국학연구』 32, 2010.

- 전명수, 「'마음·몸·영혼'과 사회에 대한 뉴에이지적 접근」, 『원불교사상과 종교 문화』 50, 2011.
- 정희완, 「세속화, 세속주의, 그리고 그리스도교: 세속주의 문화와 새로운 복음화」, 『현대 세계의 문화 상황과 신앙 교육』 (제2회 새로운 복음화 세미나 자료집, 2013).
- 조용래, 「경제와 종교의 상관문제와 그 현대적 의미에 대하여: '막스 베버 테제'를 중심으로」, 『경제논문집』 7, 1993.
- 한국갤럽조사연구소(<http://www.gallup.co.kr/>), 「2004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①」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http://kpastor.org/>), 「2012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의식조사 요약보고서」 (2013. 1. 31)
- 헌팅턴, 새뮤얼·해리슨, 로렌스 공편, 『문화가 중요하다』 (이종인 옮김), 서울: 김영사, 2001.
- 홍성민, 「불교와 경제-禪思想을 중심으로」, 『한국선학』 24, 2009.
- 황병배, 「한국 기독교 사회적 기업 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32, 2012.
- 황재하, 「경제와 종교·윤리와의 관계」, 『사회과학논총』 14, 2002.
《경향신문》 1984. 2. 24.
《기독신문》 (<http://www.kidok.com>) 2005. 2. 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0. 3. 24. “종교지도자 자살예방 대국민 성명 발표”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2013. 1. 9. “역대 정부별 GDP-세계경제 성장률·1인당 GNI 증가율”
《조선일보》 2013. 5. 3.
- Bankston III, Carl L., “Rationality, Choice and the Religious Economy: The Problem of Belief,” *Review of Religious Research* 43:4, 2002.
- Barro, Robert J., “Spirit of Capitalism: Religion and Economic Development,” *Harvard International Review* (Winter 2004).
- Casanova, José, “Private and Public Religions,” *Social Research* 59:1 (Spring 1992).
- Dobbelaere, K., “Secularization Theories and Sociological Paradigms: Convergences and Divergences,” *Social Compass* 31:2-3, 1984.
- Fenn, R. K., “Towards a New Sociology of Religion,”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11:1, 1972.

- Furseth, Inger and Repstad, Pål, *An Introduction to the Sociology of Religion*, Burlington, VT: Ashgate, 2006.
- Glasner, Peter E., *The Sociology of Secularisation: A Critique of a Concept*,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77.
- Glock, Charles Y. and Stark, Rodney, *Religion and Society in Tension*, Chicago: Rand McNally, 1965.
- Gorski, Philip S., "Historicizing the Secularization Debate: An Agenda for Research," Michele Dillon (ed.), *Handbook of the Sociology of Relig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 Hadden, J. K., "Toward Desacralizing Secularization Theory," *Social Forces* 65:3, 1987.
- Herbert, David, *Religion and Civil Society: Rethinking Public Religion in the Contemporary World*, Aldershot: Ashgate, 2003.
- McCleary, Rachel M. and Barro, Robert J., "Religion and Economy,"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0:2 (Spring 2006).
- PewResearch Global Attitudes Project, "Among Wealthy Nations"(2002, 12. 19.) (<http://www.pewglobal.org/2002/12/19/among-wealthy-nations/>)
- Shiner, L., "The Concept of Secularization in Empirical Research,"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6:2, 1967.
- Stark, Rodney, "Secularization, R.I.P.," Malcolm Hamilton (ed.), *The Sociology of Religion: Critical Concepts in Sociology*, Vol.IV, London & New York: Routledge, 2007.
- Stark, R. and Bainbridge, W. S., "Towards a Theory of Religion: Religious Commitment,"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19:2, 1980.
- Stark, R. and Bainbridge, W. S., *The Future of Religion: Secularization, Revival, and Cult Forma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5.
- Swatos, William H., Jr. and Christiano, Kevin J., "Secularization Theory: The Course of a Concept," *Sociology of Religion* 60:3 (Autumn 1999).
- Wallis, Roy and Bruce, Steve, "Secularization: The Orthodox Model," Malcolm Hamilton (ed.), *The Sociology of Religion: Critical*

Concepts in Sociology, Vol.IV, London & New York: Routledge, 2007.

Warner, R. Stephen, "Work in Progress toward a New Paradigm for the Sociological Study of Religion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8:5, 1993.

Zuckerman, Phil, "The Sociology of Religion of W.E.B. Du Bois," *Sociology of Religion* 63:2, 2002.

<Abstract>

A Study on the Relations of Religion and Economic Development from the Perspective of Theories Related with Religious Change

Chun, Myung-Soo (Institute of Social Research, Korea University)

Concerns about the relation of economy and religion started from the time secularization became the issue in the sociology of religion. The theory presupposed the decline of religion as well as the religious believers, but the recent surveys show that religious populations in Korea surpass the half of total population, showing roughly 'steady increase'. Although religious people increased in spite of the economical crisis, and accordingly religion looks irrelevant to economical circumstances, nevertheless, putting all the surveys together minute decline appeared at times of financial hardships.

The privatization theory of religion in 1960s stemmed from the recognition that the powers of public and social influence have been weakened in comparison with what they were. What is important is that the diminishing role of religion in the public sphere did not necessarily refer to receding of individuals' religious belief. The previous research shows that worship service attendance at established religion is negative to economic development, but for given levels of church attendance economic growth rises when certain religious beliefs increase. Survey data in Korea imply the fact that about half to 60% among total religious adherents are making sincere and active participation in the economic activities. Koreans have, however, another religious traits of belief favoring this-worldly blessing besides salvation in the next world, and it is not certain whether or not the belief can equally promote active and sincere

economical activities.

According to the rational choice theory that religious belief and practice are largely determined by the market conditions, the religious needs depend upon richness and diversity of religious products. What is most highlighted by the theory is new religions, which provide various complementary spiritual things created through commercial works and achieve material prosperity called as 'spiritual economics'. Religion as dependent variable may be in some degree influenced by economical conditions, but as independent variable it is sure to help economical development.

Key Words: religion and economic development, secularization, privatization, rational choice theory, spiritual market, new religion